

# 개인사업자 15만명 채무불이행 버는 돈 줄고 빚은 늘어나 '허덕'



지속되는 경기 부진과 민간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고금리 기조 속에 대출 원금과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데 장사가 되질 않는다. 이들 중 많은 이가 신용불량 및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을 각종 통계가 보여준다.

**고금리 장기화에 설 곳 잃어가  
최근 2년새 채무불이행자 146% ↑  
대출잔액 꺾중... 11조→30.7조**

최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불과 2년 사이 갑절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개인사업자 수는 지난 2022년 6만3031명이었다. 이후 2023년(11만4856명)에 10만 선을 넘어섰고 지난해 15만5060명까지 치솟았다. 2년 만에 146%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2년간) 채무 불이행자들의 총 대출잔액도 11조2762억 원에서 30조7248억 원으로 170% 넘게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중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이 특히 심각했다. 지난해 말 기준 60대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372조4966억 원으로 1년 만에 24조7303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이하(-1조9030억 원), 30대(-6조4589억 원), 40대(-12조9124억 원), 50대(-2조6843억 원) 등 다른 나이대에서 잔액이 줄어든 것과 대조를 보인다.

고령층 채무불이행자수와 이들이 보유한 대출잔액 증가세도 가팔랐다. 지난 1년간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보유 대출금액도 5조1840억 원에서 7조8920억 원으로 각각 50% 넘게 급증했다. 고령층은 생계형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데다 '경기 침체'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타격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약화의 영향으로 빚을 더 떠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불과 1

년 반(2021년 7월 0.5%→2023년 1월 3.5%) 사이에 3%포인트(p)나 인상됐고,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민간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빚상환 여력은 바닥을 치게 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판매(소비)는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2003년 신용불량대란 이래로 소비가 21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경기(-5.7%)와 인천(-5.0%)에선 감소폭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소매판매는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줄었는데, 이 같은 3년 연속 감소세는 지난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하순 공개한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는 이들의 경영 지표가 전년(2022년)보다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벌어들인 돈은 감소한 반면 빚은 증가한 것.

2023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체당 연 매출액은 1억9900만 원으로 2022년(2억3400만 원)보다 3500만 원 줄어 들었다. 연간 영업이익 역시 2500만 원으로 2022년(3100만 원)에 비해 600만 원 줄었다. 이에 반해, 기업체 부채보유 비율은 60.9%로 2022년(59.3%)보다 늘었고 기업체당 부채액도 1억9500만 원으로 2022년(1억8500만 원)보다 1000만 원 늘었다.

소상공인이 꼽은 경영애로(복수 응답)는 경쟁심화(59.1%), 원재료비(42.1%), 상권쇠퇴(36.7%), 보증금·월세(25.6%), 최저임금(14.9%)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2023년은 일상 회복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고, 부채 증가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비부진 겹치며 경영여건 악화  
올해 경제성장 전망도 어두워  
당국·은행권, 금융지원 뒷받침**

소비심리는 이후 2024년에도 살아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2·3사태로 인해 더욱 위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월평균 지출 증가 폭(+2.5%)은 2021년 1분기(+1.6%) 이후 15분기 사이 가장 작은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올해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민간 소비가 작년보다 1.3%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올해 1분기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금 연체 및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준비 중이다. 25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연 7000억 원, 3년간 총 2조 원 상당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리를 낮춰주거나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을 정리한 후에도 남은 빚을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갚을 수 있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명동 상권 건물에 임대문의가 붙어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일 최대 12시간 주식거래... KRX 대비 수수료 20~40% ↓

### Q&A

#### 대체거래소 NXT

**정규시간 외 프리·애프터마켓 운용  
안정성 확보 위해 차입공매도 불허**

4일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을 시작한다. 국내 주식 시장의 거래 시간은 현행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으로 확대된다. 복수 거래소 체제가 처음 도입되는 데다 주식매매 거래 체결 방식에도 다소 변화가 있어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 달라질 주식 거래와 시장 환경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주식 거래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나**

**A.** 기존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 외에 오전 8시~8시 50분 프리마켓(Pre-market), 오후 3시 30분~8시 애프터마켓(After-market)

이 열려 하루 주식거래 가능 시간이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직장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주식 거래가 용이해진 셈이다. 다만 정확한 시가·종가 산출과 시세조종 방지를 위해 정규장 시작 전 오전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 정규장 종료 전인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간은 NXT를 통한 거래는 중단된다.

**Q. 대체거래소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A.** NXT에 참여하는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출범일부터 NXT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총 28개로,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 등 14개 증권사는 프리마켓, 메인마켓, 애프터마켓에 모두 참여한다. 신한투자증권·메리츠증권·SK증권·카카오페이증권 등 14개사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 참여한 뒤

추후 메인마켓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 28개사의 위탁거래 점유율은 작년 거래대금 기준 87%에 달한다. 9월부터는 추가로 4개 증권사가 NXT에 합류할 예정이다.

**Q. 거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A.** 기존처럼 시장가와 일반·최우선·최우려 지정가로 호가를 내 거래할 수 있다. 또 넥스트레이드 출범을 계기로 양 시장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 호가' 방식이 추가돼 다양한 전략 구사가 가능해졌다.

또 수수료의 경우 증권사가 거래소에 내야 하는 거래 수수료는 KRX의 경우 모든 거래에 0.0023%가 부과된다. NXT는 거래 수수료를 세분화하면서 KRX 대비 20~40%가량 낮췄다. 메이커(Maker·시장 가격이 아닌 지정가 주문) 거래에는 0.00134%를,

테이커(taker·시장 가격 주문) 거래에는 0.00182%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일가 매매는 테이커호가와 메이커호가 구분이 어려워 평균인 0.00158%를 적용한다. 다만 투자자가 내는 수수료는 증권사가 정하는 것이어서 수수료 인하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다.

**Q. 시가·종가 기준은 언제, 어떻게 산출되나**

**A.** 기본적인 시가·종가는 KRX 거래가가 기준으로, 기존처럼 정규장 전후 동시호가를 통해 산출된다. 정규장 마감 이후 가격 변화는 다음날 시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날 프리마켓의 시가는 전날 KRX 증가로 시작한다.

**Q. 현재 거래가능한 종목은**

**A.** 출범 2주차까지는 10개 종목만 거래된다.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스트리, LG유플러스, S-Oil,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와이즈엔터테인먼트, 컴투스가 포함된다.

이후 110개 종목, 350개 종목, 800개 종목으로 매주 거래 가능 종목이 확대돼 2분기 말까지 유지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출범 4주차부터 NXT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3분기 매매체결대상 종목은 6월 말에 안내될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은 거래할 수 없으며, 넥스트레이드는 향후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말에 ETF·ETN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Q. 프리·애프터마켓 주가 급변동시 대처 방안은**

**A.** 이른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 주요 공시나 뉴스로 인해 프리·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 변동폭은 정규장과 같은 ±30%로, 특정 종목의 거래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NXT는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고 다음 날 기업 공시 내용 또는 KRX의 시장조치 등을 확인한 뒤 매매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또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차입공매도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

/허정윤 기자 zelkova@